

# ‘1,195억’ 경도 연륙교 개설 공사 속도 붙나

여수와 경도를 잇는 1,195억원 규모의 연륙교 개설공사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의회는 관련 예산을 전액 통과시켰으며 여수시의회도 다음달 추경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5일 여수시에 따르면 경도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총 사업비 1,195억원을 들여 1.35km에 해당하는 연륙교를 2024년까지 개설하는 사업이다. 최초 계획은 신월동~경도~돌산 간 교통량 분산 처리를 목적으로 1986년 4월25일에 도시계획시설

## 전남도의회, 충돌 해결 조건 예산안 통과 여수시의회도 추경 검토...“적극 소통을”

(도로)로 결정 고사됐다.

도시계획도로는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개설해야 하지만, 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이 급물살을 타면서 국도비 지원을 받게 됐다.

전남도, 여수시, 미래에셋이 총 사업비 중 각 20%를 부담하기로 협약했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40%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남도, 여수시, 미래에셋이 239억원씩

분담한다. 이중 올해 분담예산으로 전남도 71억8700만원, 여수시는 73억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개발업체인 미래에셋이 대규모 수익을 얻는 레지던스 건립을 추진하자 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크게 반발하면서 경도 개발의 일환인 연륙교 개설공사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미

래에셋의 레지던스 건립 추진은 특혜라며 경도 일대 경관 훼손과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전남도의회와 여수시의회는 경도 연륙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여론을 의식하고 삭감 논의가 이뤄졌다.

그 결과 시의회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지만 도의회는 지역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예산안을 전액 통과시켰다.

경도 연륙교 개설공사는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시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대규모 민자 유치 사업이 좌초되는 것이냐는 지역사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시의회는 올해 2월 추경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쪽으로 재논의하고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양 의회는 미래에셋 측이 경도 연륙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돌하는 사안에 대해 청사진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협의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조건부를 내걸었다.

민병대 전남도의원은 “숙박시설과 랜드마크를 먼저 추진하고 레지던스 건립은 축소해야 한다”며 “미래에셋 측과도 논의를 거쳐 조건부를 제시했다. 매년 예

산안 편성·처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우 여수시의원은 “미래에셋이 진정성을 보이려면 무조건적인 레지던스 건립보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보고 추진해야 한다”며 “미래에셋 측이 기존 사업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는데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미래에셋 측 관계자는 “도의회 예산이 통과되면서 진행 상황에 대해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며 “불거진 문제들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남취재본부=곽재영 기자

## 전남 여행상품 할인지원사업 ‘상종가’

### 공모 설명회 등 개최...판매량 전국 45.7% 차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관광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재추진한 국내여행상품 할인지원사업에서 전남 상품 판매량이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등 전국 최고 인기를 누렸다.

국내여행상품 할인지원사업은 관광객에게 국가에서 여행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0년 10월 도입해 1개월간 1차로 운영하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해서 악화해 중단한 후 지난해 11월 재운영했다.

1차에는 상품판매가(40만 원 이내)의

30%(국비 20·지방비 10)를, 2차에는 40%를 한국여행협회를 통해 지원했다.

전남도는 2차 운영 시 국내여행 할인전남여행상품 운영 공모에 많은 관광업체가 참여도록 상품판매액의 10%(최대 4만 원)를, 특히 전남 업체에는 20%(최대 8만 원)를 지원했다.

또 전남관광협회와 협력해 지역 업체에 전남여행 할인상품 운영방법 및 공모 설명회 등도 개최했다.

이에 따라 전남여행 할인상품은 133개를 등록해 운영했다. 전국적으로는 493개 상품을 운영했다.

그 결과 전남 여행상품 판매인원은 지

난해 12월 초 현재 1만 9,621명을 기록, 전국(4만2,922)의 45.7%를 차지했다. 판매액으로 환산하면 총 60억 원어치다.

전남도는 당초 도비 목표액 3억 원을 조기에 소진함에 따라 추가로 2억 원을 긴급 지원해 지역 관광업체에 큰 보탬이 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국내여행상품 할인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관광객이 전남의 매력적인 관광지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가성비 높은 안전여행을 즐겼다”며 “올해부터 2년간 운영하는 2022~2023 전남도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업체 등과 협력해 전남 관광산업이 제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전남도와 목포시 관계자들이 5일 오후 목포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긴급 방역상황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집단감염 발생 시설 전수검사 및 격리 조치 실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전남도 제공

## 김영록, 코로나 급증 목포 방역상황 점검

### 빠른 안정화 총력 당부

김영록 전남지사가 5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목포지역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올 들어 4일까지 목포지역에서는 6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4일 하루에만 33명이나 된다. 감염 경로는 병원, 학교, 콜라텍, 단란주점, 목욕장 등으로 여러 곳에

서 산발적 감염이 많았다.

전남도는 즉시 신속대응반을 투입해 빠른 상황 안정화를 위해 접촉자 분류, 전수검사 등 광범위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오미크론 변이 확인을 위해 변이주 선별검사를 신속히 진행 중이다.

김 지사는 “코로나19 최일선에서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한 의료진과 관계 공무원

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현장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했다.

그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로 도민들께서 걱정과 염려가 크다”며 “확진자가 많은 지역은 전수검사를 하는 등 폭넓고 신속한 방역망을 구축해 코로나19 차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전파력 강한 신종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며 “확진자 치료, 접촉자 격리 등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길용현 기자

## 공휴일 공공 심야약국 확대한다

### 도, 올해 여수·광양 추가...총 4개 운영

전남도는 토·일요일과 공휴일 심야시간에도 전문약사에게 복약지도를 받고 일반의약품을 구입하는 ‘공공심야약국’을 확대한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역별로 지난해까지는 목포시 비타민약국, 순천시 오가네약국, 2개소를 운영했다. 올해는 여수시

백운약국, 광양시 공약국, 2개소를 신규 추가해 도내 총 4개소를 운영한다.

공공심야약국은 해당 지자체와 전남도약사회가 협의를 거쳐 도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전남도는 올해 추가한 약국을 도민이 보다 많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약국에 지정

서를 게시하는 등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공공심야약국은 지난해 4월부터 심야시간대인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일반약 판매 7,284건, 처방약 판매 82건, 전화상담 255건의 이용 실적을 냈다.

공공심야약국은 이용하는 도민 수가 점차 늘고 만족도도 높아 공공보건 의료 체계의 일환으로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올해 정부가 관련 예산을 확보해 올 하반기부터 기존 전남도의 지원과 함께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길용현 기자

## 대선 승리 민주당 나주선대위 발대식



더불어민주당 나주지역위원회(위원장 신정훈)가 5일 나주문화예술회관에서 시민과 당원,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대선 승리를 위한 나주선

대위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김승남 전남도당위원장과 윤건영 국회의원, 강인규 나주시장이 참석해 대선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

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대통령 선거에 묻혀 시민들의 관심이 부족해지기 쉬운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출마예정자를 소개하는 영상을 상영해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 나주지역위원회는 또 내실있는 지방선거 준비를 위해 지방선거지원단을 출범시키고 당장에 이순형 박사를, 위원으로 문유정, 임경렬, 국승용, 유진수, 정서연씨 등 4명을 위촉했다.

신정훈 지역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농업인을 일으켜 세울 후보는 이재명뿐이다”며 “대선 승리로 검찰과 언론개혁을 완수하자”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전원이 공명선거를 위한 클린 선거협약서에 서명해 의미를 더했다. /나주=이재순 기자

# “따뜻한 사랑이었던 당신을 기억합니다...”

하늘로 돌아가시는 길  
외롭지 않도록...  
당신을 닮은 따스한 마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합니다.

호남 유일의 고품격 초대형 전문 장례식장

**청지장례식장**  
CHEONJI funeral hall

금호지구 서광주역 옆 100M

**대표전화 (062)527-1000**

장례준비 및 절차에 대해 24시간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립니다.